

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이 문서는 '장애인차별 금지법' 관련
웹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한
"사본 PDF" 문서입니다.

| | | | |
|----------------|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등록금심의위원회 9차 회의 | | 일 시 | 2018.11.28.(수) 10:00 |
| | | 장 소 | 본부관 311호 |
| 참석위원 | 최준수(위원장), 김태호, 김인준, 이호선, 이승현, 김남균, 원윤성 (이상 7명) | | |
| 업무지원 | 간사 : 조 준 / 서무 : 안정민 예산편성 담당자: 배수현 차장(예산평가팀) | | |
| 불참위원 | 없음 | | |
| 의 제 | 2018학년도 추가경정예산(안) 심사·의결 | | |

◎ 회의내용

1. 개회선언

■ 위원장

- 재적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2018학년도 9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.
- 오늘 회의는 2018학년도 추가경정예산(안) 심사 및 의결을 안건으로 함.
- 2018학년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(안) 자료는 미리 배포해드렸으며, 자료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기로 함.

2. 2018학년도 추가경정예산(안) 심사

■ 기획처장

- 2018학년도 추경예산(안)의 규모, 적립금 현황 등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하

고, 수입 및 지출의 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시간강의료가 본예산 대비 감소하였는데, 최근 강사법 개정에 따른 조치와 관련이 있는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강사법 개정과 관련은 없으며, 평생교육원 시간강사료가 본예산 대비 감소하였기 때문임. 오히려 학부 시간강의료는 본예산 대비 증가하였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당초 본예산에 포함되었던 건물 신축이 올해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추경 예산(안)에 편성됨.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함.
- 또한 신축 조감도를 보면 산림환경시스템학과 및 임산생명공학과 학생들이 사용하던 공터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학생들에 대한 고려가 있는 것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내년 이후 명원민속관 옆과 과거 학군단 자리 등 두 곳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임.
- 공터는 해당 학과 학생들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이 본예산보다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기존 종합정보시스템은 2003년 구축 이후 15년간 사용한 시스템임. 그동안 타대학들은 여러 차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많은 비용을 투입하였음.
- 우리 대학은 전체 시스템을 한 번에 개편하다보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지만 총액을 보면 타대학에 비해 많지 않음.
- 얼마 전에 입찰을 거쳤으며 향후 2~3년에 걸쳐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입찰 과정에서 비용을 인하하였는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당초 업체에서 제안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결정되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홍보비 관련, 경전철 역명 병기 비용은 사용 기간 내에서만 지출하는 것인지 질의함. 아울러 입학홍보 동영상은 2019년을 위해 제작된 것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사용기간내에 지출하며, 연장하지 않으면 역명을 병기하지 않음.
- 올해 새로 제작한 홍보 동영상은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과 관련이 있음. 홍보 동영상을 홍보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매년 새롭게 제작할 계획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신설 전공인 바이오의약전공 학생들이 내년부터 입학하는데, 기존 공간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건물 신축이 연기되는 등 인프라 구축이 아직 미비한 상황임. 신설 전공 학생들이 사용할 공간이 부족한 것 아닌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신입생들은 실습보다는 기초강의 위주로 수강하므로 아직 시간이 있음.
- 과학관 1층에 큰 공간을 마련하는 등 해당 단과대학장의 건의로 본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평생교육원은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(안)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. 이에 대한 본부 차원의 대응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매년 전공을 신설하는 등 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. 평생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학과와 재학생 차원의 배려도 필요한 상황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평생교육원 학생들과 재학생들이 복지관 건물을 같이 사용하면서 다소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음. 향후 건물 신축과 공간 확충 등을 통해 평생교육원 학생들과 재학생들 사이의 공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람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본부에서도 학생 대표가 언급한 현황을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법인 법정부담금이 본예산 대비 증액되었음. 이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 법인 전입금을 증액할 수 있는데 본예산 편성 시 조금 더 부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, 법인에서 법정전입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법인의 재정규모 대비 전입금 비율은 높은 편이며, 법인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.

- 마른 수건을 짜서 물이 더 나왔다고 하여, 뒤에 더 많은 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님. 이미 법인 수입의 상당 부분을 전입하고 있는 만큼, 더 부담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는 없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정부의 각종 사업이나 평가에서 교원확보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, 이에 따라 법정부담금은 계속 상승할 것임. 법인의 수입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 것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등록금 수입과 법정부담금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교수 총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법정부담금이 갑자기 크게 증가하지는 않음.
- 법인에서도 법정부담금 지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확대하면서 운영할 것이라고 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건물감가상각비 상당액 적립금이 본예산 대비 증액된 이유에 대해 질의함.

■ 간 사

- 추경예산(안)의 등록금 수입이 본예산 대비 증가함에 따라 건물감가상각비 상당액 중 적립금도 일부 증가하였음. 결산 과정에서 실제 수입이 추경예산(안)에 미치지 못할 경우, 타 계정의 지출을 줄일 수는 없으므로 감가상각비 적립금에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임.

■ 예산평가팀 배수현 차장

- 실제 건물감가상각비 상당액만큼 적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나, 증가된 수입을 건축물관리비 등 교육환경개선에 많이 활용하였음.
- 결산 시 수입 규모가 확정되면 다른 계정을 조정할 수는 없으므로 건물감가상각비 적립금에서 조정하며, 추경예산(안)의 금액보다 적게 적립될 수도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결산 시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다른 계정을 줄일 수 없다고 했는데 실험실습비의 경우 이미 줄어든 것이 아닌지 질의함.

■ 예산평가팀 배수현 차장

- 각 단과대학에서 책정한 실험실습비 예산(안)을 반영한 결과이며, 2017년 결산과 비교하면 실험실습비 규모는 증가하였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단과대학에서 예산(안)을 편성하여 본부에 제출하였다면, 각 단과대학에서 계획한

예산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 질의함.

■ 간 사

- 각 단과대학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은 단과대학에서 직접 편성한 예산뿐만 아니라 경력개발지원단 등 행정부서에서 단과대학 학생들을 위해 집행하는 예산도 상당 부분 존재함.
- 단과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한 예산은 실제 단과대학 학생들을 위해 집행된 예산 전체와 일치하지는 않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전체 예산 규모를 다 알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각 단과대학에서 자율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 지 궁금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본부에서는 총액만 결정할 뿐 단과대학에서 전공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며, 그 과정에서 학생을 비롯한 각 단과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수립한다고 볼 수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단과대학 예산 편성 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회의체 등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움.
- 단과대학 예산 내역에 대해서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다룰 수 있는 것 아닌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단과대학별 여건에 따라 학장 면담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며, 반드시 학생들의 의견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.
- 등심위 회의는 등록금 수준이 적정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되는 회의이므로 학교 전체 수준에서의 예산을 논의하는 것이며, 개별 단과대학의 예산에 대한 논의는 회의 안건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단과대학의 자율예산 편성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함임. 자료가 없으면 개진할 의견도 나올 수 없음.
- 현실적으로 학생이 직접 단과대학장이나 교학팀에 찾아가 자료를 직접 요구하기는 어려움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본부는 단과대학의 상위기관이 아니며, 대학의 자율성은 단과대학 및 소속 교수의 자율성을 의미하므로 단과대학 예산 편성 자료를 본부에서 직접 제공하는 것은

본부의 권한을 넘는 것이라 판단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학생들이 단과대학에 자율예산 편성 내역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, 열람할 수 있도록 본부 차원에서 각 단과대학 교학팀에 권고를 부탁드립니다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등심위 회의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며, 본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님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대학평의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건설가계정에 조형물 설치 내역이 2건 있음.
- 그러나 지출 세부내역의 비고란에는 이에 대한 명시가 없으며, 조형물 중 하나는 설치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학생 측에서는 그동안 들은 바가 없었음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교무위원회 등 여러 회의체를 통해 공개를 해왔으며, 조형물 관련 비용은 비고란의 리모델링 공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음.

■ 외부 전문가 위원

- 비고란에 내역을 건별로 모두 기입할 수는 없으므로, 건물 위주로 분류하여 정리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조형물 설치보다 셔틀버스 확대 등 학생 복지를 위해 직접 투입하는 예산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조형물을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인식하기보다는, 중장기적으로 대학의 이미지와 구성원의 자부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무형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필요함.

■ 위원장

- 2018학년도 추가경정예산(안)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는지 확인하고, 추가 질의가 없어 2018학년도 추가경정예산(안)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로 함.

3. 심의 및 의결 사항

- 2018학년도 추경예산(안)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며 참석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의결함.

4. 폐회선언

- 이상 2018학년도 추경예산(안) 심사·의결을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함. 끝.

2018. 11. 28.

국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